

## 제4절 수송

### 1. 수송수단

#### 가. 철도

일본인들이 탄광 개발에 앞서 석탄수송을 위한 철도를 먼저 부설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석탄개발과 철도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삼척탄광의 탄이 철도를 이용하여 철암과 도계에서 목호로 수송된 것을 비롯하여 문경, 은성, 회순 등 일제시대에 개발된 탄광은 철도로 생산단을 수송하였다.

광복 이후에도 정부는 심각한 연료난 극복을 위해 석탄증산 정책을 추진하며 영암선, 함백선, 문경선 등 석탄산업철도의 부설에 착수하였다. 1966년 수송 부진으로 연탄파동이 발생하자 박정희 대통령은 태백탄전에서 생산된 석탄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제천↔태백간 태백선 부설과 청량리↔목호간 전철화를 지시하였다.



▲ 석탄을 실은 열차가 서울로 들어오고 있다.

### 석탄산업철도 현황

구분	삼척철도	영암선	문경선	함백선	화순선	태백선
구 간	목호 철암	영주 철암	점촌 은성	제천 함백	화순 복암	태백 제천
거 리	142.5km	86.4km	22.8km	60.7km	12km	95.1km
착공연도	1932	1949	1949	1949		1969
개통연도	1940	1956	1955	1957	1941	19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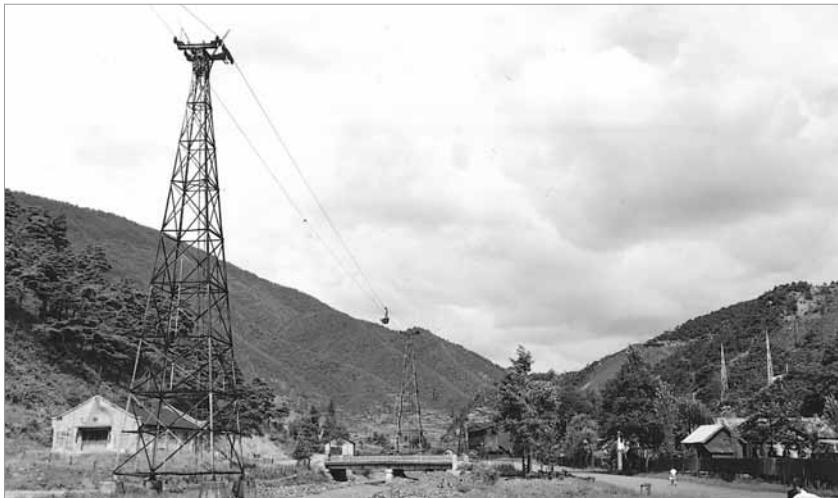
## 나. 삭도

지형적인 문제로 도로 개설이나 철도 부설이 여의치 않은 지역은 공중삭도를 설치하여 석탄을 수송하였다. 석탄 수송을 위한 공중삭도는 운영상의 문제로 그리 오래 이용되지는 않았으나 도계에서는 1994년까지 홍전에서 도계역까지 삭도를 이용하여 석탄을 운반하였다.

공중삭도로 석탄을 수송한 대표적인 예는 영월로, 개발 초기부터 1960년대까지 생산탄 전량을 공중삭도를 이용하여 영월화력으로 공급하였다. 또한 삼척탄광 역시 표고차에 의해 철도 부설이 어렵자 개발 초기에는 홍전에서 도계 구간 외에 통리에서 나한정까지 삭도를 설치하여 장성탄을 수송하였다.

## 다. 해상수송

철도수송이 불가능한 제주도를 비롯 동해안과 남해안의 연안도시에 대한 석탄공



▲ 영월탄은 가공삭도를 통해 영월화력발전소로 공급됐다.

급은 해상으로 이루어졌다. 선박수송은 일시에 다량을 수송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선적과 하역에 따른 조작비 등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영암선 개통 전 선박을 이용, 목호를 통하여 부산과 인천으로 장성, 도계 탄을 수송하여야 했던 공사는 막대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초기 경영난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 2. 해상수송과 선박



▲ 목호항에서의 선적 장면(영암선 개통전 장성과 도계탄은 목호를 통해 해상으로 부산과 인천으로 수송됐다).

### 가. 배경

광복 전 삼척탄광(장성, 도계)의 생산탄은 절반 이상이 일본으로 반출되어 발전용 탄으로 공급되었고 나머지는 계열회사인 북삼화학공장의 공업원료탄으로 공급되었다. 그에 따라 일본인들은 철암과 목호까지의 철도만 부설하였다.

그러나 광복 후 일본 반출이 중단되고 서울, 부산 등 대도시로 석탄을 공급하여야 할 상황에서 조선석탄배급회사는 목호와 부산, 인천에 사업소를 개설하여 해상으로 공급하였다.

이러한 수송체계는 창립 이후에도 계속되어 공사는 대한해운공사와 수송계약을

체결하여 부산, 마산, 군산, 인천, 제주로 석탄을 공급하였다. 그러나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수송량도 늘어남에 따라 대한해운공사 보유 선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1953년 석탄수송을 위한 선박을 구입, 직접 수송하게 되었다.

#### 나. 사선(社船)

공사는 1953년 9월, 전(前)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를 통하여 미국으로부터 정부보유 외화 66만 달러를 주고 1943년 건조된 세 척의 선박을 구입하였다. 선박의 이름은 공사의 광업소 이름을 따 장성, 도계, 화순 호로 명명하고 이들 선박으로 장성, 도계 탄을 수송하였다. 또한 선박 운영에 따라 1953년 12월, 본사에 선박부가 설치되었으나 영암선 개통 후인 1957년 선박업무는 부산지사로 이관되었다.

국내에 한하여 운항되던 세 척의 선박은 영암선 개통 이후 육상수송 증가로 휴항일 수가 늘고 다른 한편으로 한일수교가 이뤄지면서 무역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1960년에는 항해 구역이 일본까지 확장되기도 하였다.

20년 가까이 부산화력을 비롯 동해안과 남해안 연안도시로 취항하던 세 척의 선박은 노후화로 대대적인 수리 없이는 정상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공사는 1971년 4월 조선공사에서 신규 건조한 태창호와 태성호로 교체하면서 종전의 선박을 매각하였고, 석유파동 직전인 1973년 3월에는 연안도시 해송량에 비하여 선박이 너무 커 사선의 효율적 운행을 기할 수 없게 되자 태성호마저 매각하였다.

이후 석유파동으로 다시 해송물량이 증가하면서 긴급하게 선박 두 척(석공1호, 석공2호)을 추가 구입하여 태창호와 함께 세 척을 운항하였으나 해상수송량이 감소되면서 석공2호는 1982년, 석공1호는 1991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창호는 1996년



▲ 장성호



▲ 태창호

선박제원 및 매각연월

	화순	장성	도계	태성	태창	석공1	석공2
G/T	1,856.65	1,889.33	1,897.89	3,654.52	3,654.52	1,952.52	1,984.06
길이(m)	76.38	76.10	76.20	101	101	83.72	81.25
폭(m)	12.86	12.90	12.90	15.80	15.80	12.8	13.0
D/W	2,600	2,600	2,600	5,703	5,703.51	3,156.86	3,212.03
건조	1943	1943	1943	1971	1971	1964	1966
인수	1953	1953	1953	1971	1971	1974	1974
매각일자	1972. 8	1972. 8	1972. 8	1973. 3	1996. 8	1991. 9	1982. 9



▲ 석공1호

매각하였다.

#### 다. 해상수송

창립 초기 장성과 도계 탄은 해상으로 공급되었다. 그 후 영암선 개통으로 일부가 철도수송으로 전환되기는 하였으나, 생산량 증가와 민영탄광의 가격인하 판매로 판매난을 겪던 공사는 수송비 과다로 민영이 공급을 기피하는 연안도시에 대한 공급을 담당하며 30년간 자체 선박을 이용한 해상수송을 유지하여 왔다.

연탄파동 당시 90만 톤까지 늘어났던 해상수송 물량은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70만 톤 이상을 유지하였으나 1980년 이후 유가안정과 가정연료 전환에 따라 급격히 줄었다. 1990년대에는 석탄수송만으로는 운항일수를 채우지 못해 다른 화물의 운송까지 담당하였으나, 계속되는 적자로 태창호의 매각과 함께 1996년 해상수송은 종료되었다.

비록 해상수송이 공사의 경영에는 막대한 부담을 안겨주었으나 석탄 공급 지역의 확대와 수급안정에 기여한 바는 매우 크다.

## 제5절 무연탄 수입

### 1. 연탄제조용 분탄 수입

#### 가. 수입 배경

석유파동 이후 정부의 증산정책에 힘입어 석탄생산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수요의 증기가 석탄증산률을 능가하여 장기적으로는 가정용 연료의 수급안정이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증산 과정에서 질보다는 양에 치중하여 저 열량탄 생산이 늘어남에 따라 공급탄의 탄질이 기준열량에 미달되어 소비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8년 정부는 외국산 무연탄을 수입하여 부족분을 보충하고 고 열량탄인 수입탄을 혼합하여 연탄을 제조함으로써 기준열량을 유지하는 한편, 저열량탄 개발 확대를 통해 국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 나. 창구 일원화

무연탄 수입은 1978년 4월 10일 제20차 경제장관협의회에서 결정된 이후 초기에는 용도에 따라 3개 기관에서 수입을 담당하였다. 연탄제조용은 공사가, 발전용탄은 한국전력이, 비축용탄은 조달청에서 각각 입찰을 실시하여 수입하였다.

기관별 무연탄 수입현황

(단위: 천톤)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석 공	645	1,839	1,660	3,391	1,873	781	804	2,269	3,758	2,782
조달청		24	531	456	259					
한 전		154	500	446	159	32		64	157	
계	645	2,017	2,691	4,293	2,291	813	804	2,333	3,915	2,782

그러나 수입대상국은 한정되어 있는데 세 개의 수입기관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국내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함으로써 종합상사간 원탄 확보를 위한 과당경쟁이 유발되었다. 그 결과 수입가격이 상승하는 등 수입질서가 문란해지고 물량의 적기 확보에도 차질이 발생하는 등 폐단이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1982년 전문성을 감안하여 수입창구를 공사로 일원화하였으며 공사는 입찰에서 직수입 체제로 전환하였다. 이후 한전의 발전용 탄까지 공사에서 수입하여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 다. 무연탄 도입심의위원회

무연탄 수입을 공사에서 담당하였으나 사실상 공사의 사업은 아니었다. 모든 사항은 정부가 결정하고 공사는 수입과 공급에 관한 실무만 수행하였다. 정부는 1984년 8월 '외국무연탄 도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입량, 도입선, 구매시기, 방법, 조건 등 수입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 〈외국 무연탄 도입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동자부 차관  
 위원: 대통령 비서실 산업담당 비서관  
     국무총리실 제2조정관실 심의관  
     국가안전기획부 제3국장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장, 대외경제조정실 제2협력관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외무부 경제국장  
     동자부 광무국장  
     공사 부사장

	수입탄 판매수익						(단위: 천톤, 백만원)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판매량	2,530	1,651	988	1,068	1,725	1,163	
수 입	123,331	86,129	54,367	57,802	87,630	62,742	
비 용	117,859	72,025	42,768	48,168	76,891	56,432	
당기순익	5,452	14,104	11,599	9,634	10,739	6,310	

간 사: 동자부 광업정책과장

#### **라. 연탄가격안정지원금 지원**

외국산 무연탄의 수입 판매 결과 손실이 발생할 경우 석탄안정기금에서 보전하고, 수익이 발생할 때는 해당 금액을 연탄가격안정기금에 편입하여 활용하였다.

1978년 수입개시 초기에는 매년 결손이 발생하여 연탄 소비자에게서 결손보전자금을 징수, 결손을 충당하였다. 그러나 창구일원화 및 직수입으로 전환 이후 1987년부터는 수입가격 인하와 해운임 하락의 영향으로 흑자로 전환되면서 보전자금 징수를 중단하였다. 그후 1988년 1월부터 이익금은 전국 연탄공장에 지원하고 있는 연탄 가격안정지원금의 재원으로 사용하여 연탄가격 인상 요인을 흡수하였다.

정부사업으로 수행되어 온 수입탄 사업은 연탄제조용 분탄 수입이 중단된 직후인 1995년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공사의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 **마. 무연분탄 수입실적**

연탄제조용 무연탄은 창구일원화 이후 공사에서 수입을 전담하였다. 비록 무연탄이 1987년 이전까지는 수입 자동승인 품목이었으나 수입 원가가 국내 생산탄의 판매 가격에 비하여 고가였기 때문에 민간 상사에서는 수입을 하지 않았다. 공사에서 수입탄을 일괄 수입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은 가격 차액에 대한 손실을 수입탄 보전자금

수입탄 수익금 처분내역

(단위: 백만원)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조성액	수입탄판매수익금	5,452	14,104	11,599	9,634	10,739	6,310
	수입탄보전자금			7,756	1,895		
	석유사업기금				19,900	35,400	31,300
	전기이월이익금	1,278	6,730	8,628	8,628	6,398	3,993
	기타				57		
계		6,730	20,834	27,983	40,114	52,537	41,603
처분액	연탄가격안정지원금		12,206	19,355	33,355	47,104	35,939
	괴탄이익금공사지원				361	1,440	2,141
	계		12,206	19,355	33,716	48,544	38,080
차기이월금		6,730	8,628	8,628	6,398	3,993	3,523

으로 대체해 주었기 때문이다.

공사는 1978년 무연탄 수입을 시작한 이후 1994년까지 총 2400여만 톤을 수입하였다. 초기에는 주로 미국과 남아공에서 수입하였으나 1986년 이후부터는 수입 대상국을 아시아 지역으로 전환하여 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였다.

한때 376만 톤까지 늘어났던 연탄제조용 무연탄 수입은 1987년부터 점차 수입량이 감소하였다. 연탄 수요가 격감하면서 공급과잉이 초래되고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에 의해 저열량탄을 생산하는 영세 탄광이 폐광되면서 혼합할 대상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결국 연탄제조용 무연탄 수입은 1994년 7만2000톤을 끝으로 종료되었다.

## 2. 산업용 무연탄 수입

국가별 연탄제조용 무연탄 수입현황

(단위: 천톤)

연도	계	미국	남아	중국	베트남	러시아	스와지	북한	기타
1978	646	200	242		181		23		
1979	1,839	370	748	188	245		96	172	21
1980	1,660		987	310	41		41	282	
1981	3,391	957	1,241	159	624			410	
1982	1,874	315	500	296	441			321	
1983	781	360		110	200	34		77	
1984	804	266	57	199	223	60			
1985	2,269	552	308	816	474		26		93
1986	3,758	817	885	1,251	581		118		107
1987	2,782	651	515	1,295	123		59		140
1988	1,656	293	154	705	211	166	60		67
1989	742	31		433	226	52			
1990	798	36		438	229	95			
1991	1,012			696	181	66		69	
1992	301			150	57	30		63	
1993	26			26					
1994	72			72					
계	24,411	4,850	5,636	7,143	4,037	502	422	1,394	428

## 가. 부당 유통과 창구 일원화

공사가 수입 공급하는 연탄제조용 분탄과는 달리 1980년대 초부터 난방용과 보일러용으로 무연괴탄이 민간상사에 의해 국내에 수입 공급되고 있었다. 괴탄은 보일러용과 산업용으로 판매되었으나 괴탄 취급시 발생하는 상당량의 분탄(괴분탄이라 한다)을 처리할 수 없던 수입업체에서는 이를 탄광과 연탄공장에 판매하였다. 또한 괴탄 수입으로 수익을 올리던 일부 상사는 연탄제조용에 비해 가격이 매우 저렴한 \*유사무연탄을 수입하여 이를 탄광 등에 판매하였다.

괴분탄과 유사무연탄의 판매행위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시는 국내 석탄산업 보호 육성과 연탄가격 안정을 위해 석탄생산과 연탄제조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탄광이 수입된 석탄을 구입하여 생산량에 포함하고 연탄공장도 국내탄보다 가격이 싼 괴분탄과 유사무연탄을 구매하여 연탄을 제조한 후 국내 석탄에 준하여 보조금을 받은 것이 문제였다.

이러한 부당 유통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자 정부는 해당업체를 제재하는 동시에 1987년 7월에는 무연탄을 수입제한품목으로 지정하여 수입시 공사의 수입 추천을 받도록 하고 괴분탄은 전량 공사에서 구매하여 판매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업체의 부당유통은 근절되지 않아 1990년 2월 정부는 괴탄의 수입창구마저 공사로 일원화하였다.

## 나. 괴탄 수입실적

괴탄 수입은 정부사업으로 수행하던 수입탄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다만 연탄제조용 수입과 달랐던 것은 수익금이 연탄가격안정기금에 편입되지 않고 공사의 일반회계에 포함되어 손익에 도움을 주었다는 점이다.

1990년에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그 동안 괴탄을 수입해 온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하였으나 구매가격 상승과 수급안정 문제로 직수입으로 전환하였다.

보일러와 일부 산업용 수요에 국한하던 괴탄 수입은 삼천리의 코크스 제조용탄, 포항제철의 소결용 무연탄으로 확대되면서 1996년 87만 톤으로 늘었으나, 1997년 7월의 수입제한품목 해제로 수입이 자유화되자 수입량이 격감, 1999년을 끝으로 종료되었다.

주) 유사무연탄: 유,무연탄을 구분하는 기준은 국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통상 휘발분의 함유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함유량 14% 이상의 탄을 유연탄으로, 14% 미만의 탄을 무연탄으로 하고 있다.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유연탄은 휘발분 함유량은 25% 이상이다. 한편 10~20% 정도 휘발분을 함유한 탄을 Semi-antracite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이용가치가 적어 가격이 매우 싸다. 이러한 탄을 일부 업체가 수입하여 연탄제조용과 발전용 등으로 공급하였다.

#### 다. 괴탄사업과 괴분탄

공사에서 괴탄 수입을 담당하게 된 원인이 괴분탄의 부당 유통에 있었고 괴탄사업을 수행하면서 가장 큰 난제가 바로 괴분탄의 처리였던 만큼 괴분탄은 괴탄사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정부는 괴탄의 수입창구를 일원화하면서 괴분탄의 부당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괴분탄 전량을 공사에서 인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수입탄사업이 1994년까지는 정부사업이었으므로 정확하게는 정부가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수가격도 당시의 연탄제조용 무연탄의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보다 훨씬 높은 괴탄 수입가격에 운송비를 포함하였으며, 국내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분탄까지 공사로 하여금 매입하도록 하였다.

연도별·국기별 괴탄 수입현황						(단위: 톤)
연도	계	중국	베트남	북한	남아공	
1990	181,447	171,845	9,602			
1991	493,300	327,267	103,047		62,986	
1992	596,553	341,781	254,772			
1993	794,291	387,310	395,982	10,999		
1994	612,985	462,538	128,141	22,306		
1995	777,553	492,578	222,597	27,231	35,147	
1996	866,738	672,007	145,937	16,500	32,294	
1997	438,242	363,006	43,966		31,270	
1998	32,121	32,121				
1999	41,374	41,374				
계	4,834,594					

정부는 괴분탄을 발전용과 연탄제조탄으로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국내 연탄수요의 급격한 감소로 탄광이 판매난에 직면하자 수입탄의 민수용 공급을 제한하고 발전용으로만 한정하였다.

그러나 발생하는 괴분탄에 비해 발전용 배정량이 턱없이 적어 재고는 급격히 늘거나 1995년 1월 수입탄사업이 공사의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재고 처분의 책임이 공

사로 이관될 당시 재고는 50만 톤에 이르렀고, 2000년 말 현재 34만 톤의 재고가 그대로 남아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괴분탄 발생 및 처리현황 (단위: 천톤)

연도	괴탄수입	인수 · 발생량	처리수량	재고량
1990년 이전분		192	104	88
1990	181	31	31	88
1991	493	89	89	88
1992	596	109	87	110
1993	794	161	75	196
1994	624	160	45	311
1995	778	146	67	390
1996	867	26	23	393
1997	438	-	5	388
1998	32	7	41	354

주) 1996년부터 분탄 발생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판매조건에 분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이다.

## 제6절 무연탄 비축

### 1. 비축제도

#### 가. 1960년대의 비축

공급물량에 여유가 있을 때 일정 물량을 확보하여 부족할 때 이를 활용하는 것을 비축이라고 한다.(1976년부터 시행된 정부비축과는 성격이 다르다) 석탄 비축은 민수용 수요의 급증으로 석탄의 계절별 수요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

공사는 여름철 판매부진을 타개하기 위하여 소비지에 저탄장을 설치하고 여름철에 일정 물량을 이송하였다가 성수기에 이를 공급하였다. 이는 1963년부터 정부의 수급계획에 포함되어 '하계저탄'이라는 용어로 제도화되었고 비축제도의 기원이 되었다.

당시 정부는 하계저탄 대상 물량을 책정하고, 여름철에 공사에서 생산된 석탄의 일부를 공사가 보유한 소비지 저탄장에 저탄하도록 하고 성수기에 정부의 지시에 따라 공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하계저탄은 정부지원 없이 공사의 비용으로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1970년대 비축제도와는 구분된다.

성수기 연탄의 수급안정을 위해 시행된 하계저탄은 1960년대 민영탄광이 고속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여름철 석공탄의 민수 판매를 제한함으로써 민영탄의 판매가 신장되었고, 탄가인상과 수급불안에 따른 가수요를 민영이 충산하여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민영탄광의 생산량이 급증하였다.

한편 여름철에는 탄광이 판매난을, 겨울철에는 연탄공장이 석탄확보의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매년 반복됨에 따라 탄광과 연탄공장을 함께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강원산업은 탄광개발로 시작하여 연탄공장으로, 대성과 삼천리 등은 연탄공장에서 부를 축적하여 탄광개발에 진출한 대표적 기업이다.

1970년 정부는 최초로 '하기 소비지 저탄계획'을 수립하여 4월부터 9월까지 지방

장관 책임하에 전국 주요 20개 도시에 160만 톤을 저탄하도록 하였으나(석공탄 80만 톤, 민영탄 80만 톤, 서울 90만 톤, 지방 70만 톤) 이 때까지도 정부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 나. 1970년대 이후의 비축

현재와 같은 비축제도의 기반이 만들어진 것은 1971년이다. 그 해 4월 정부는 「하계저탄용 공장저탄 업무 취급요령」을 제정하여 하계저탄 장소를 공사 저탄장과 연탄공장으로 이원화하고 공장저탄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1974년 『석탄수급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 이후 전자는 '정부비축'으로, 후자는 '하계저탄'으로 발전하게 된다.

##### (1) 하계저탄 : 공장저탄

1971년 3월 정부는 200만 톤(공사 80만 톤, 민영 120만 톤)의 하계저탄 계획을 수립, 공사의 하계저탄 목표 80만 톤 중 30만 톤은 종전과 같이 공사 저탄장에 저탄하고 나머지 50만 톤은 지방장관이 선정한 연탄공장에 저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장저탄에 대하여는 톤당 2000원씩 자금을 융자하고 8개월의 융자기간 중 6개월에 대한 이자를 보조하면서 하계저탄이 시작되었다.

톤당 융자금액은 탄가 인상에 따라 매년 고시로써 인상 조정되고 무이자 융자기간은 석탄산업합리화 이후 8개월로 늘어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하계저탄자금의 융자제도는 하계저탄 수요가 없어져 1998년을 끝으로 종료되었다.

석유파동 직후 정부는 1974년도 소비지 저탄 방안과 저탄자금 융자 요령을 제정 시행하면서 하계저탄과 비축탄을 구분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비축은 1976년 이후 시행된 정부비축과는 달리 저탄 장소가 연탄공장이 아닌 공사 저탄장이라는 점과 수급 관리자가 상공부 장관이라는 점만 다를 뿐 저탄자금 운용 등 모든 면에서 하계저탄과 성격이 동일하다.

##### (2) 정부비축

정부비축은 1975년 『석탄수급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정 이후 1977년 석탄기

금을 재원으로 정부가 석공탄 16만5000톤을 구매하였다가 겨울에 10만 톤을 방출하고 잔량을 비축한 것을 시작으로 정착되었다.

무연탄에 대한 수입이 개시되면서 수입탄에 대하여도 비축이 이뤄져 1982년까지는 주로 조달청에서 수입한 무연탄이 비축되었다.

당초 정부는 장기적인 석탄 수급안정을 위해 1980년부터 1986년까지 연차적으로 비축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1979년 말 제2차 석유파동과 1980년에서 1981년 초에 걸친 혹한으로 연탄의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국내탄의 비축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다 이상난동으로 연탄 소비가 감소한 1982년 말 70만 톤의 저탄을 비축탄으로 구매한 이후 비축이 본격화되었고, 1983년부터 비축탄 관리 업무는 공사에서 담당하였다.

## 2. 정부비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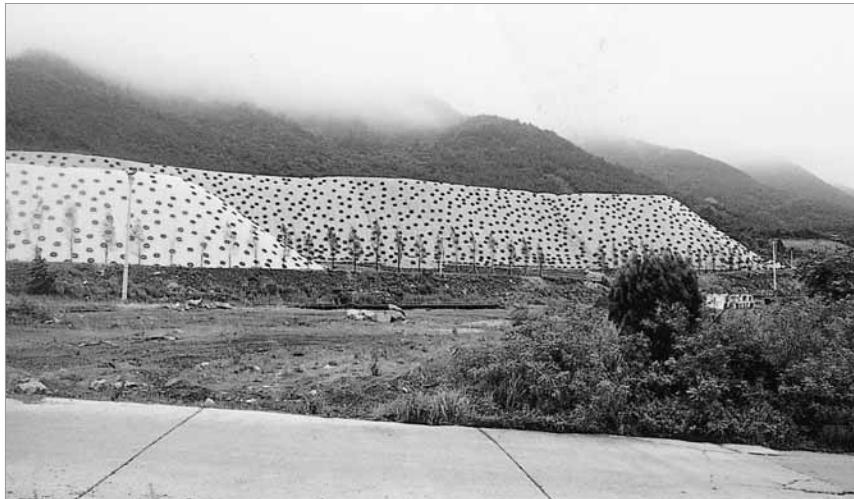
### 가. 비축장

비축제도의 비교

항목	1960년대의 하계저탄	1970년대 이후	
		하계저탄	정부비축
대상탄	석공탄	석공·민영탄	
저탄장소	공사 저탄장	연탄공장	공사 저탄장, 정부비축장
수급관리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앙정부
자금지원	은행 차입	정부자금융자, 이자보조	저탄기금으로 구입

정부비축 시행 초기에는 여름철에 비축한 탄이 겨울철 성수기에 대부분 출하되었기에 별도로 비축장을 조성하지 않고 공사가 보유한 수색과 옥마저탄장을 사용했다. 수입탄도 장기 저탄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 수색을 비롯하여 인천과 목포 등 수입 항구와 연탄공장에 비축하였다.

1980년부터 비축량이 점차 증가하며 별도의 정부비축장을 조성하기 시작하여 수입탄 전용으로 1980년 11월 인천에, 1983년에는 국내탄 비축을 위해 석항과 강릉에 비축장을 설치하였다. 또한 1987년에는 전북 김제군 와룡면과 경북 반야월과 구미



▲ 충남 보령시에 있는 옥마비축장

등 3개 장소에 정부비축장을 설치하였으나 반야월과 구미비축장은 1990년 비축탄 전량 방출을 계기로 폐지되었다.

그 후 1995년 석탄산업 종합대책'에 따라 500만 톤 추가 비축을 시행하며 막대한 비축장 조성비와 비축장 주변의 민원 등을 고려하여 공사의 장성, 도계, 화순광업소 부지를 활용한 산지 비축장이 조성되었다.

한편 대구에도 5만 톤의 비축탄이 남아 있다. 이는 1991년 대구연료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탄 5만 톤을 구입하여 철도청 부지에 보관하였으나 판매가 이뤄지지 않아 정부에서 이를 비축자금으로 구매한 것이다.

정부비축장별 비축현황(2000.12.31 현재)

(단위: 평, 천톤)

구분	소 비 지 비 축 장							산지비축장		
	수색	석항	와룡	옥마	강릉	인천	대구	장성	도계	화순
위 치	서울	강원	전북	충남	강원	인천	대구	태백	삼척	전남
	마포	정선	김제	보령	명주	서구	동구	철암	도계	화순
총면적	18,937	72,371	20,142	11,940	4,333	34,581	3,279	28,636	19,986	21,500
용 량	550	2,000	480	450	150	930	110	2,490	1,000	1,430
현저탄	549	1,885	476	453	150	524	50	1,930	901	1,193
설 치	67.9	83.5	87.3	67.	83.10	80.11	87.5	96.8	96.8	96.6
비 축	81.9	83.7	87.8	82.1	83.10	80.9	87.7	96.9	96.9	96.10
토지소유자	산자부	산자부	산자부	공사	강릉시	산자부	철도청	공사	공사	공사

### 나. 비축현황

정부비축은 1986년까지는 비축과 방출이 반복되면서 200만 톤을 넘지 않았으나 석탄 수요의 감소로 방출이 줄어들며 1987년 급격히 늘어나 1988년에는 300만 톤을 넘어섰다. 1990년 걸프전 사태로 인해 일시적으로 연탄 수요가 늘어나면서 1991년에

연도별 정부비축 내역(1977~2000)

(단위: 천톤)

연도	총 계			국내탄			수입 탄		
	비축	방출	재고	비축	방출	재고	비축	방출	재고
1977	165	100	65	165	100	65			
1978	333	65	333		65		333		333
1979	351	317	367				351	317	367
1980	627	164	830				627	164	830
1981	1,078	601	1,307	103		103	975	601	1,204
1982	944	29	2,222	688		791	256	29	1,431
1983	1,103	102	3,223	653	10	1,434	450	92	1,789
1984	23	1,315	1,931	23	297	1,160		1,021	771
1985	439	1,020	1,350	439	565	1,034		455	316
1986	856	649	1,557	232	341	925	624	308	632
1987	994	49	2,502	845	48	1,722	149	1	780
1988	740	40	3,202	740	39	2,423		1	779
1989	278	213	3,267	278	142	2,559		71	708
1990	4	918	2,353	3	742	1,820	1	176	533
1991	375	583	2,145	325	545	1,600	50	38	545
1992	628	12	2,761	628	12	2,216			545
1993	246		3,007	246		2,462			545
1994			3,007			2,462			545
1995	1,051		4,058	1,051		3,513			545
1996	975		5,033	946		4,459	29		574
1997	1,005		6,038	1,005		5,464			574
1998	986		7,024	986		6,450			574
1999	777		7,801	777		7,227			574
2000	310		8,111	310		7,537			574

는 210만 톤 수준으로 감소되었다.

비축탄은 유가 안정으로 1992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3년 300만 톤을 넘어섰고, 1995년부터 2000년까지 500만 톤 추가 비축으로 2000년 말 현재 811만 톤의 정부비축탄이 저탄되어 있다.

## 제7절 주요 사업소

### 1. 부산

조선석탄배급회사 산하 사업소로 1946년 설치되었다. 삼척탄(장성, 도계)과 수입 탄의 하역, 외자구입과 원조장비의 출납업무를 담당하던 중 1950년 공사 창립시 부산지사로 등록되었고, 한국전쟁 중에는 임시 본사가 위치하기도 하였다.

1957년, 본사에서 담당하던 선박관리 업무를 인수받은 후 1996년 사선 운영이 폐지될 때까지 남해안 연안도시와 부산화력에 대한 해상공급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선박업무를 전담하였다.

민수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된 1960년부터 판매업무까지 담당하였으나 석유파동 이후 판매제도가 변경되고 이를 본사에서 일괄 수행하게 되자 1975년부터 판매업무는 종료되었다. 1978년 무연탄 수입이 시행되면서 부산, 울산, 마산 항으로 수입되는 무연탄의 통관, 하역, 저탄 관리를 수행하였다.



▲ 선박운항과 남해안 석탄공급을 담당하던 부산지사 신축 사옥

처음에는 지사에서 출발하여 1973년 8월에는 사무소로 변경되었으나 1974년 4월 다시 지사로 승격되었고, 그해 11월 또다시 사무소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외자도입과 무연탄 수입이 증가하면서 1985년 지사로 승격, 1987년에는 부산진구 범천동에 사옥을 신축하기도 하였으나 1996년 사선운항 폐지 후 영남사업소로 변경되고 1998년 폐지되었다.

1950년대에는 UNKRA 지원장비, 1960년 제1수갱 건설장비와 AID 차관장비, 1970년대 ADB 차관장비, 1980년대 제2수갱 건설장비 등 대부분의 외자물품은 부산을 통하여 수입되었다.

### ◎ 부산지사 연혁

1946년	조선석탄배급회사의 사업소로 설치 주소: 부산시 대교동 1가 12번지
1950년	공사 창립시 부산지사로 등록
1957년	본사 선박부로부터 선박관리 업무 인수
1960년	판매업무 겸업
1973년	사무소로 변경
1974년	지사로 승격
1975년	사무소로 변경
1975년	석탄판매 업무 본사 이관
1978년	수입탄 하역업무 담당
1986년	지사로 승격
1987년	사옥 신축(부산진구 범천동)
1996년	영남사업소로 변경
1998년	영남사무소 폐지

## 2. 인천

## 역대 소장

역대	성명	재임기간	비고
1	김재준 (金在俊)	50.12.14 ~ 51. 4.20	업무부 이사 겸무
2	허 덕 (許 德)	51. 5. 1 ~ 51. 8.14	
3	김인승 (金仁丞)	51. 8.15 ~ 52. 5.25	51.8.15~51.12.7 회순소장 겸무
4	김주학 (金柱鶴)	52. 5.26 ~ 53. 3.20	
5	조한벽 (趙漢璧)	53. 3.21 ~ 53. 7.24	
6	박수덕 (朴壽德)	53. 7.25 ~ 54. 3.24	
7	김인호 (金仁皓)	54. 3.25 ~ 56.12.12	
8	박종환 (朴鍾煥)	56.12.18 ~ 56.12.31	
9	김이현 (金 鑫)	57. 1. 1 ~ 59. 9. 2	
10	김병원 (金秉源)	59. 9. 3 ~ 60. 1. 7	
11	이홍규 (李弘圭)	60. 1. 8 ~ 60. 7. 3	
12	함낙현 (咸洛鉉)	60. 7. 4 ~ 61. 6.11	
13	이천준 (李天俊)	61. 7.13 ~ 63. 3.14	
14	강 훈 (康 勳)	63. 3.15 ~ 63. 7.14	
15	김구연 (金龜淵)	63. 7.15 ~ 66.10. 3	
16	박원기 (朴元箕)	66.10. 4 ~ 70. 9. 9	
17	주태언 (朱台彦)	70. 9.10 ~ 72. 3.19	
18	박상열 (朴相烈)	72. 3.20 ~ 72. 8.21	
19	심명복 (沈明福)	72. 8.22 ~ 74. 2.16	
20	이주환 (李柱桓)	74. 3. 6 ~ 76. 4.25	
21	김종승 (金鍾承)	76. 4.26 ~ 78. 4.16	사무소장
22	차영경 (車永景)	78. 4.17 ~ 79. 7.31	
23	홍사은 (洪思殷)	79. 8. 1 ~ 80. 7.10	
24	서두영 (徐斗永)	80. 7.11 ~ 82. 6.30	
25	조창제 (趙昌濟)	82. 7. 1 ~ 84.11. 7	
26	박주성 (朴周成)	84.11. 8 ~ 88. 3.28	85.12.20 지사장
27	이병훈 (李炳薰)	88. 3.28 ~ 89. 1.24	
28	원명희 (元明熙)	89. 1.25 ~ 89.12.29	
29	이종수 (李鍾守)	89.12.30 ~ 90. 8.13	
30	전선길 (全宣吉)	90. 8.14 ~ 92. 2. 9	
31	민태규 (閔台圭)	92. 2.10 ~ 93. 9.21	
32	고인현 (高仁鉉)	94. 1.24 ~ 95. 3. 8	
33	전정용 (田晶鎔)	95. 3. 9 ~ 96. 8.31	
34	김규한 (金奎翰)	96. 9. 1 ~ 96.12.25	
35	김문겸 (金文謙)	96.12.26 ~ 98.11.16	영남사무소장

부산과 마찬가지로 1946년 조선석탄배급회사 산하 사업소로 설치되었다. 삼척탄(장성, 도계)과 수입탄의 하역을 담당하던 중 1950년 공사 창립시 인천출장소로 등록되고 1954년 6월 지사로 승격되었다.

영암선 개통 이후 삼척탄의 경인지역에 대한 공급이 철도로 전환됨에 따라 해상 수송 업무가 종료, 그 기능이 축소되면서 출장소로 축소되어 소비지 저탄장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다 1971년 소비지 저탄장 폐쇄와 함께 폐지되었다.

1978년 수입탄 업무가 시작되면서 1979년 11월 수입탄사업소로 재설치되었고, 연탄제조용 무연탄과 산업용 괴탄의 수입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1980년에는 수입탄 비축을 위한 정부 저탄장이 조성되면서 이에 대한 관리도 담당하게 되었다. 수입물량 증대에 따라 1986년 지사로 승격되고 1996년에는 수색사무소를 흡수하였으나 1998년 무연탄 수입이 감소되면서 사무소로 변경되었다.

#### ◎ 인천사무소 연혁

1946년 조선석탄배급회사의 사업소로 설치

주소: 인천시 만석동 21번지

1950년 공사 창립시 인천출장소로 등록



▲ 인천은 1979년 무연탄 수입을 위해 재설치되었다. 수입탄 하역 광경

1954년 지사로 승격

1958년 출장소로 변경

지사로 승격

1960년	출장소로 변경
1967년	사무실 및 저탄장 이전(만석동 2번지 ⇒ 도화동 391-1)
1971년	출장소 폐쇄
1979년	수입탄사무소로 신설
1986년	지사로 승격
1996년	수색사무소와 통합
1998년	사무소로 변경

### 3. 목호

역대 소장

역대	성명	재임기간	비고
1	이맹수 (李孟秀)	51. 7. 1 ~ 52. 5.31	출장소장
2	이덕영 (李德榮)	52. 6. 1 ~ 53. 3.20	
3	조일형 (趙一衡)	53. 3.21 ~ 54. 3.24	
4	박수덕 (朴壽德)	54. 3.25 ~ 55. 6.30	54.6.5 지사장
5	이맹수 (李孟秀)	55. 7. 1 ~ 57. 1.16	
6	박종환 (朴鍾煥)	57. 1.17 ~ 57.10.21	
7	유영원 (庾永源)	57.10.22 ~ 57.11. 6	
8	오상도 (吳相燾)	57.11.30 ~ 59.10.18	58.1.27 출장소장
9	이홍규 (李弘圭)	59.10.19 ~ 60. 1. 7	
10	박종환 (朴鍾煥)	60. 1. 8 ~ 60. 3.21	
11	김진영 (金璉榮)	60. 3.22 ~ 61. 6.13	
12	주명석 (朱明石)	61. 7.13 ~ 62. 3.19	
13	장인삼 (張麟三)	62. 3.20 ~ 62. 9.19	
14	조하진 (趙河鎮)	62.10.10 ~ 63. 8.30	
15	정수영 (鄭壽永)	63. 8.31 ~ 63.11.10	
16	이민희 (李敏會)	63.11.11 ~ 66. 3.22	
17	김명선 (金明善)	66. 3.23 ~ 70. 2.28	
18	정태고 (鄭泰高)	70. 3. 1 ~ 71. 7.25	71.11.11 출장소장 폐지
19	김광수 (金光洙)	79.12.27 ~ 81. 7.31	사무소장
20	김재화 (金在和)	81. 8. 1 ~ 84.11. 7	

역대	성명	재임기간	비고
21	조창제 (趙昌濟)	84.11. 8 ~ 85. 8. 6	
22	차재휴 (車在休)	85. 8. 7 ~ 86. 7. 20	지사장
23	전정용 (田晶鎔)	86. 7. 21 ~ 89. 7. 6	
24	차재휴 (車在休)	89. 7. 7 ~ 90. 8. 13	
25	김광수 (金光洙)	90. 8. 14 ~ 91. 9. 30	
26	진충식 (陳忠植)	91. 10. 1 ~ 92. 2. 9	
27	김창락 (金昌樂)	92. 2. 10 ~ 93. 8. 12	
28	하재목 (河在穆)	93. 10. 11 ~ 94. 11. 20	
29	전선길 (全宣吉)	95. 3. 9 ~ 96. 12. 25	
30	이학모 (李學模)	96. 12. 26 ~ 98. 11. 1	
31	김종하 (金鍾夏)	98. 11. 16 ~ 00. 12. 31	사무소장
32	김영철 (金影喆)	01. 1. 1 ~ 01. 7. 4	
33	손을주 (孫乙周)	01. 7. 5 ~ 현 재	

목호는 가장 오래된 사업소로 1936년 삼척탄광 개발 당시 삼척탄의 일본 수출과 탄광개발에 필요한 물자 도입 창구로 설치되었다. 삼척탄광 산하 기구로 운영되던 목호는 광복 후 조선석탄배급회사가 설립되며 그 산하로 편입, 삼척탄 해상공급기지의 역할을 담당하던 중 공사 창립 후 목호출장소로 등록되었다.

1956년 영암선 개통 이후 일부 수량이 철도수송으로 전환되어 해상공급량이 다소 줄기는 하였으나 1980년까지 연간 약 80만 톤의 석탄이 목호를 통하여 해상으로 수송되었다. 1996년 목호사무소가 폐지될 때까지 동해 북부 및 제주도와 남해 연안도 시에 대한 해상공급을 담당하였다.

연탄파동 직후 동해북부지역의 민영탄광에서 생산한 탄을 일부 매입하여 공급하였고, 판매 강화를 위해 생산탄의 대일 수출을 시행하면서 장성, 은성 탄의 수출창구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1983년 정동진 비축장이 설치되면서 비축탄 관리업무 까지 수행하였다.

당초 출장소로 출범한 목호는 1972년 하치장으로 변경되었다가 1973년 사무소로 변경된 후 1974년 출장소를 거쳐 1975년부터는 다시 사무소가 되었다. 또한 1977년에는 리크레이머(집적기)를 설치, 선적을 자동화함으로써 연 300만 톤의 석탄을 선적할 수 있게 되었으나 해상수송 종료와 함께 1996년 폐지되어 도계에 통합되었다.

### ◎ 묵호사무소 연혁

- 1936년 삼척개발주식회사 산하 사업소로 설치  
 1946년 조선석탄배급회사 사업소로 편입  
 1950년 공사 창립으로 묵호출장소로 등록

역대 소장

역대	성명	재임기간	비고
1	권한상 (權漢相)	51. 7. 1 ~ 51. 9. 30	출장소장
2	최종균 (崔鍾均)	51.10. 1 ~ 53. 1. 25	
3	이맹수 (李孟秀)	53. 1. 26 ~ 53.11. 6	
4	합낙현 (咸洛鉉)	53. 11.7 ~ 56. 7. 8	
5	민천기 (閔天基)	56. 7. 9 ~ 58.12.23	
6	김병원 (金秉源)	58.12.24 ~ 59. 9. 2	
7	김구연 (金龜淵)	59. 9. 3 ~ 63. 7.14	
8	주명석 (朱命石)	63. 7.15 ~ 64. 5.17	
9	장인삼 (張麟三)	64. 5.18 ~ 66.11.20	
10	김진환 (金振煥)	66.11.21 ~ 68. 4.14	
11	이우영 (李禹榮)	68. 4.15 ~ 68.11.10	
12	오윤선 (吳潤善)	68.11.11 ~ 70. 8.31	
13	이우영 (李禹榮)	70. 9. 1 ~ 72. 2. 2	
14	김성길 (金成吉)	72. 2. 3 ~ 74. 4.15	72.12.6 하치장 소장
15	원명희 (元明熙)	74. 4.16 ~ 76. 4.25	74.10.28 출장소장
16	이주환 (李柱桓)	76. 4.26 ~ 77. 3. 2	사무소장
17	노재삼 (盧在三)	77. 3. 3 ~ 77.10.10	
18	박주성 (朴周成)	77.10.15 ~ 79. 7.31	
19	조창제 (趙昌濟)	79. 8.27 ~ 80.12.14	
20	김재화 (金在和)	80.12.15 ~ 81. 7.31	
21	이승우 (李昇雨)	81. 8. 1 ~ 85. 9. 8	
22	안철선 (安哲善)	85. 9. 9 ~ 88. 1.10	
23	최광섭 (崔光燮)	88. 1.11 ~ 89. 1.29	
24	최정화 (崔正和)	89. 1.30 ~ 93. 9.22	
25	임 용 (任 龍)	93.10.11 ~ 95. 3. 8	
26	정구총 (鄭求忠)	95. 3. 9 ~ 96. 6. 9	
27	김명한 (金明漢)	96. 6.10 ~ 98.11.16	96.12.26 지소장

주소: 강원도 강릉군 북호읍 발한리 1구 5-1

- 1967년 동해 북부지구 민영탄 매입 공급
- 1969년 장성탄 일본 수출
- 1970년 은성탄 일본 수출
- 1972년 하치장으로 변경
- 1972년 도계탄 일본 수출
- 1973년 사무소로 변경
- 1974년 출장소로 개칭
- 1975년 사무소로 개칭
- 1977년 북호항 석탄가교 준공
- 1983년 정부비축탄 업무 개시
- 1996년 북호사무소 폐지(도계에 통합)

#### 4. 수색

민수용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계절별 수급 조절을 위한 소비지 저탄장으로 1960년 처음 설치되었다. 성수기를 대비하여 여름철에 일정량의 석탄을 소비지에 저탄하는 하계저탄을 시행하면서 철도청 용지 3000평에 저탄장을 조성하였다. 하계저탄이



▲ 북호는 삼척탄광 개발 당시부터 운영되던 사업소로 해상 수송의 전진기지였다.  
(북호항의 자동화된 선적시설)

정부수급계획에 포함되고 수급기능이 강화되면서 1962년 출장소로 승격되었으나 1965년 12월 저탄장 부지를 철도청에서 사용하게 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그 후 1967년 연단과동으로 판매난이 심각해지자 판매장화 목적으로 수색지사로 재설치되었다. 그러나 판매업무를 본사에서 일괄 담당하면서 1971년 12월 본사 직할 사업소로 편입되어 1972년에는 하치장으로 변경되었다.

『석탄수급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정으로 정부의 하계저탄과 비축이 시행되며 1975년 사업소로 승격, 서울지역에 석탄수급 조절을 담당하여 오던 중 석탄소비의 감소와 함께 출하가 중단되면서 1996년 폐지, 인천에 통합되었다.

### ◎ 수색 연혁

1960년	수색저탄장 설치
1962년	출장소로 승격
1965년	수색출장소 폐지
1967년	수색지사로 재설치
1971년	판매업무 중단
1972년	하치장으로 변경



▲ 수색은 1967년 서울지역의 석탄수급 조절을 위해 설치되었다.

1975년	사무소로 변경
1976년	정부탄 하계저탄

1977년	정부비축 시작
1986년	비축사업소로 전환
1996년	사무소 폐지, 인천에 통합

## 5. 석항

정부비축의 본격 시행에 따라 정부종합비축장이 설치되고 비축탄 관리 업무를 공사에서 담당하게 됨에 따라 1983년 6월에 설치되었다.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천포리에 위치한 석항사무소는 20만8000m<sup>2</sup>(6300만 평) 부지에 저탄된 188만 톤의 정부비축탄을 관리하고 있다.

역대 소장

역대	성명	재임기간	비고
1	김영배 (金靈培)	62.10. 1 ~ 62.10. 9	출장소장
2	이종태 (李鍾泰)	62.10.10 ~ 63. 8.30	
3	강병운 (康炳運)	63. 8.31 ~ 64. 3.31	
4	김영규 (金腰圭)	64. 4. 1 ~ 64. 8. 6	
5	이장호 (李張鎬)	64. 8. 7 ~ 65.11.30	65.12.1 출장소 폐지
6	이홍범 (李洪範)	67. 9. 1 ~ 69.10.24	지사장
7	심인식 (沈仁植)	70. 3. 1 ~ 71. 7.25	
8	김진환 (金振煥)	71. 7.26 ~ 72. 2. 2	
9	정우용 (鄭友溶)	72. 2. 3 ~ 77. 1. 6	하치장 소장
10	유인호 (劉仁鎬)	77. 1. 7 ~ 81. 7.31	사무소장
11	안순근 (安舜根)	81. 8. 1 ~ 85. 4. 5	
12	김광수 (金光洙)	85. 4. 6 ~ 88. 1.10	
13	라병은 (羅秉銀)	88. 1.11 ~ 88.12.18	
14	염현홍 (廉炫泓)	88.12.19 ~ 93.11.30	
15	김윤채 (金潤彩)	93.12.20 ~ 95. 3. 8	
16	유광상 (柳光相)	95. 3. 9 ~ 98.11.16	96.12.9 지소장

## 6. 호남

1987년 전북지역의 석탄수급 조절을 위하여 김제군 와룡면에 정부비축장이 조성되면서 와룡사무소가 설치되었다. 그 후 1994년 광주지사와 통합되어 호남지사가 되었고, 1995년에 호남사무소로 변경되었다.

현재는 와룡비축장과 충남 보령시에 있는 옥마비축장을 담당하고 있으며, 와룡에 48만 톤, 옥마에 45만 톤의 비축탄이 저탄되어 있다.



▲ 석항사무소는 188만톤의 정부비축탄을 관리하고 있다.

#### 역대 소장

역대	성명	재임기간	비고
1	최광섭 (崔光燮)	83. 5.25 ~ 88. 1.10	사무소장
2	김영주 (金榮周)	88. 1.11 ~ 89. 11.26	
3	김주영 (金周煥)	89.12.15 ~ 90. 8.24	
4	오정용 (吳正鎔)	90. 8.25 ~ 92. 9. 1	
5	노석훈 (盧錫勳)	92. 9. 2 ~ 94. 3.31	
6	이승의 (李勝義)	94. 4. 1 ~ 95. 11. 7	
7	김종하 (金鍾夏)	95.11. 8 ~ 96. 8.31	
8	정명균 (鄭明均)	96. 9. 1 ~ 98. 11.16	
9	한덕수 (韓德洙)	98.11.19 ~ 00.12.31	
10	김길열 (金吉烈)	01. 1. 1 ~ 현 재	

## 7. 청량리

수색과 마찬가지로 1960년 8월 민수용 수급조절을 위한 사업소로 설치되었다. 영동, 함백, 기타 산업선을 통하여 서울로 반입되는 장성, 함백 등의 생산단의 저탄과 판매를 담당하였다. 석유파동 직전까지는 서울지역 석탄공급량의 대부분을 취급하였다.



▲ 1987년에 설치된 와룡비축장과 호남사무소

역대 호남소장

역대	성명	재임기간	비고
1	박종철 (朴鍾哲)	93. 9.22 ~ 94.10.17	지사장
2	정봉길 (鄭奉吉)	95. 7.13 ~ 96. 1.21	사무소장
3	김정남 (金正男)	96. 1.22 ~ 96. 8.31	
4	김문겸 (金謙)	96. 9. 1 ~ 96. 9.30	
5	이승의 (李勝義)	96.10. 1 ~ 96.12.25	
6	백창현 (白昌鉉)	96.11.26 ~ 97.12.31	
7	김동빈 (金東彬)	98. 1. 1 ~ 98.11.15	
8	이병덕 (李丙德)	98.11.16 ~ 00.12.31	
9	김용범 (金容範)	01. 1. 1 ~ 현 재	

## 역대 외룡소장

역대	성명	재임기간	비고
1	이기행 (李基行)	86. 7.21 ~ 90. 6. 4	사무소장
2	이승의 (李勝義)	90. 6. 5 ~ 92. 2. 9	
3	박종철 (朴鍾哲)	92. 2.10 ~ 93. 9.21	

처음 청량리출장소로 출범하여 1962년 청량리지사로 승격되었으나 청량리역 구내 저탄장 폐지로 1970년 이문동으로 이전, 이문지사로 변경되었다. 이문지사는 1972년 하지창으로 변경된 후 연탄공장이 대형화됨에 따라 1973년 폐지되었다.

## 8. 해외지사

무연탄 수입 초기에는 주로 미주탄을 수입하였던 관계로 1981년 7월 미국 뉴저지 주에 미국지사를 설립하여 수입탄의 품질검사 및 선적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후 수입선이 중국 등 아시아로 전환되면서 1991년 2월 미국지사를 홍콩으로 이전하여 홍콩지사로 운영하던 중 수입탄 업무가 종결되는 1994년 폐지되었다.

## 9. 기타

## 역대 소장

역대	성명	재임기간	비고
1	남영식 (南暎植)	57.11.30 ~ 58. 9.10	출장소장
2	민천기 (閔天基)	58. 9.11 ~ 59. 2.16	
3	함락현 (咸洛鉉)	59. 2.17 ~ 60. 3.21	
4	박종환 (朴鍾煥)	60. 3.22 ~ 60. 8.12	
5	권영관 (權寧寬)	60. 8.13 ~ 62.10. 9	62.10.1 지사장
6	강 훈 (康 勳)	62.10.10 ~ 63. 3.14	
7	이천준 (李天俊)	63. 3.15 ~ 63. 8. 6	
8	권영관 (權寧寬)	63. 8. 7 ~ 67. 2.20	
9	이주환 (李柱桓)	67. 2.21 ~ 70. 9. 9	
10	정종택 (鄭宗澤)	70. 9.10 ~ 71. 7.25	이문지사장
11	심명복 (沈明福)	71. 7.26 ~ 72. 8.22	72.1.1 하치장 소장
12	유용준 (兪龍濬)	72. 8.22 ~ 72.12.23	하치장 소장

그 외 목포사무소가 1979년 11월 설치되어 수입탄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1989년 2월 광주로 이전하여 광주지사로 운영하다가 1994년 비축탄 사업소인 와룡사무소와 함께 호남지사로 통합되었다.

1987년 5월 대구사무소가 설치되어 반야월과 구미의 비축탄을 관리하였으며 1991년 8월 비축탄이 방출되면서 폐지되었다.

#### 역대 해외지사장

역대	성명	재임기간	비고
1	김종성 (金鍾聲)	81. 9.10 ~ 83. 8.31	미국지사장
2	전정용 (田晶鎔)	83. 9. 1 ~ 86. 7.20	
3	장호순 (張浩淳)	86. 7.21 ~ 89. 5.31	
4	이병훈 (李炳薰)	89. 6. 1 ~ 94. 11. 1	91.4.1 홍콩지사장

#### 역대 목포·광주소장

역대	성명	재임기간	비고
1	전철용 (田哲龍)	79.12.27 ~ 81. 7.31	목포사무소장
2	박종철 (朴鍾喆)	81. 8. 1 ~ 87. 5.24	
3	임형모 (林鎣模)	87. 5.25 ~ 93. 6.30	89.3.1 광주지사장

## 역대 대구소장

역대	성명	재임기간	비고
1	김경호 (金 鎬)	87. 6. 1 ~ 89. 1.24	사무소장
2	하상찬 (河相燦)	89. 1.25 ~ 90. 8.24	
3	송필완 (宋必玩)	90. 8.25 ~ 91.12.31	
4	송필완 (宋必玩)	92. 7. 6 ~ 96. 9. 1	
5	조건명 (趙健明)	96. 9. 1 ~ 96.12.31	

## 역대 대전소장

역대	성명	재임기간	비고
1	이용익 (李容翼)	92. 7. 6 ~ 94. 3.31	사무소장
2	노석훈 (盧錫勳)	94. 4. 1 ~ 96. 8.31	
3	김영근 (金榮根)	96. 9. 1 ~ 96.12.31	

## 역대 옥마소장

역대	성명	재임기간	비고
1	정봉길 (鄭奉吉)	96. 1.22 ~ 96. 8.31	사무소장
2	이용익 (李容翼)	96. 9. 1 ~ 96.12.31	